

국내외 한국학자료들 어떻게 정리·이용하나 소재·보존실태 파악 급선무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5개국 20여 전문가 참석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학 자료들의 현황과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한국국학진흥원 주최로 11월 28~29일 열렸다. 참가자들이 종합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국학진흥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외국 장각 도서 반환을 둘러싸고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 큰 소득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동시에 국내에 있는 고문서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존·정리되고 활용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반성의 계기도 됐다.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심우영)이 '국내외 한국학 자료의 보존 실태와 전망'을 주제로 지난 11월 28~29일 개최한 한국학

국제학술대회도 이런 반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가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국내외 한국학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였다.

특히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국관련 자료들의 소재와 보존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도서관 선본 특장실에 소장된 한국본 고서적과 한국학 관

련 고서적을 조사한 박현규 순천향대 교수는 "중국에는 많은 국학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실제로 자료 조사를 해 보면 공개를 꺼리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일본 도야마대학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는 "일본 내 많은 곳에서 한국본을 소장하고 있고 목록 정리도 외국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본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서가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흩어진 문헌 종합목록 작성부터 자료 독점의식 버리고 공유정신 가져야

파리 리옹대학 이진명 교수는 "프랑스에는 2천여 권의 한국 고서와 50여 점의 고지도가 있고 국립도서관에는 <직지심경>과 <왕오천축국전> 등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있지만 이들 자료에 대해 깊이 있고 체계 있는 연구를 아직 못하고 있다"며 "프랑스에 있는 한국학 자료들은 그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어 목록도 작성되어 있고, 마이크로필름이나 CD-ROM 등으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의 종합적인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여러 기관이나 개인이 분산해서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

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영춘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관찬사료와 같은 역사 자료들은 우리 조상들의 공적인 재산이며 국민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소장처들이 자료의 독점의식을 갖고 폐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국가적인 자료 정리·정보화의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며 중복 투자의 위험성이 있다"며 "자료 이용의 개방성과 공유의 정신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종목 교수는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료에 대한 종합 목록 작성이 한국학 자료 정리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학 자료 전시회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 발표한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자료의 DB구축은 근본적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한 없이 이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입력 기관이나 주관처의 복수한 목적과 시스템상의 문제로 개방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보화 자료의 유통과 공개를 과제로 제시했다.

국학진흥원 관계자는 "한국 정신사와 문화사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국학 자료를 올바르게 정리해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국학 연구의 성패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잘 정리하고 보존하며 효과 있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inyis@buddhania.com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11)

인간미 넘치는 나한상

벌써 십여 년 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백과사전 편찬부에 근무하던 시절, 백과사전에 실을 나한상을 촬영하기 위해 여러 사찰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 당시 나는 의외의 상들에 약간의 신선한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렇게 연속하게 보였던 정보문화재 중에서 이처럼 인간적인 면모가 철철 넘치는 상들이 있었구나 하는 당혹감이었다.

갓가지 다양한 인간적인 모습을 만나는 여행은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하는 기회였다. 그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나한상은 마곡사16나한상, 화엄사16나한상, 운수암나한상 등으로 주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상이었다. 그들이 펼치는 세계는 인생의 고귀한 드라마를 연상케 하였다.

쓰다듬고 있으며, 어떤 이는 옆에 있는 분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다. 이분들의 자유로운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인간적인 면모가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불화에서도 이러한 감동은 그대로 전해진다. 1725년에 조성된 송광사 응진전 나한도는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나한도이다. 응진전(應眞殿)이라 하면 진리에 상응한다는 뜻으로, 바로 깨달음에 이른 나한들을 모신 전각이라는 의미이다. 여기 모셔진 나한도 가운데 제12 나가사나존자(那伽摩那尊者), 제14 법나파사존자(法那婆斯尊者), 제16 주다반락가존자(住陀半若迦尊者)를 그린 장면이 특히 흥미롭다. 제12존자는



△송광사 응진당 16나한도(1725년). 이 작품의 매력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흐름에 있다. 최근 모뎀로 지정 예고됐다.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아 어떤 생각에 잠겨 있다. 제14존자는 가려운 등을 긁고 있으며, 제16존자는 위를 바라보며 상념에 빠져 있다. 무언가 깊은 침묵에, 무료함까지 화면에 깔려 있다. 이러한 정서는 조용하면서 가늘게 흐르는 선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나한상은 두께가

송광사 나한도 권위적 면모 자취 감춰 등 굽고 상념에 빠진 모습 너무 인간적

성문(倣問)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침을 얻는다는 네 단계가 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뒤로 갈수록 높은 단계이니, 아라한이 가장 큰 깨달음인 것이다. 그 깨달음의 정도는 부처에 버금간다. 이 아라한(阿羅漢)을 줄여 나한(羅漢)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나한이란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제작된 나한상의 모습은 의외로 인간적이고 자연스럽다. 그 큰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 그들에게는 전혀 신적이거나 권위적인 면모를 찾을 길이 없다. 어떤 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있고, 어떤 이는 호랑이를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얇게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요롭게 보인다.

특히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아 있는 제12존자의 경우, 가는 선묘로 묘사되었지만 동글게 부풀어진 어깨의 실루엣에서 무엇이든 포용하는 넉넉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배경은 이들 상의 평면적인 표현과는 대조적으로 붓질이 거칠고 강한 질감을 통해 입체감을 내었다. 거칠고 입체적인 배경에 가늘고 평면적인 흐름을 보이는 나한상을 대비시킨 것이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흐름이 우리를 이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주고 있다.

"최초의 한글 佛書는 '원각선종석보'"

노태조 교수, 불교문화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한글로 된 최초의 불서(佛書)로 추정되는 <원각선종석보(圓覺禪宗釋譜)>가 발견됐다.

현재 학계에선 한글 불서의 상한선을 <월인천강지곡>이 완성된 세종 28년(1446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발견된 <원각선종석보>는 세종 20년(1438년) 천불사에서 간행된 것으로 이보다 8년이나 앞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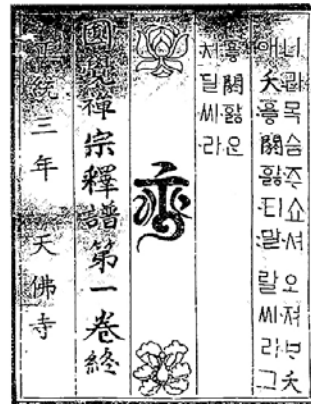
노태조 대전보건대 교수가 10월 30일 한국불교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공개한 <원각선종석보>는 아직까지 이 책의 이름이나 천불사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진본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본이 확실하다면 한글 창제 시기 역시 세종 25년(1443년)에서 5년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월인천강지곡'보다 8년이나 앞서 간행돼 "체제나 판형, 자형, 어휘, 문장, 방점, 한자에 중국정음식 음이 달려있는 것 등이 <석보상절>이나 <월인천보> 등과 비슷하여 15세기 초 문헌으로 손색이 없다"고 밝힌 노 교수는 "원각선종석보"는 석보상절 최초의 한글 불서로, 앞으로 관련 학계의

<원각선종석보>는 <석보상절> <월인천보> 등과 같이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그린 석보계 한글 불서로 전체 5권 분량. 이번 공개된 것은 제1권으로 끝머리에 '정통(正統: 1436-1449년) 사용된 명나라 연호 3년 천불사(天佛寺)' 라고 적혀 있어 1438년 개간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일정한 일타 스님이 중국에서 구해 가지고 있다 제1권을 복사하여 세종대 경향대 교수에게 연구 자료로 기증한 것을, 노 교수가 다시 복사해 가지고 있던 것이다.

본격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일타 스님이 입적한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품이 정리되고 원본이 공개되면 진본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초의 한글 불서라는 주장이 제기된 '원각선종석보'의 마지막장.

'월인천강지곡'보다 8년이나 앞서 간행돼

노 교수는 "한글 창제가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천불사 역시 실제 절 이름이 아니라 당시 궁중에 있던 내물당을 비밀리에 지칭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전류·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수맥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들과 번지문 일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전류 유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심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본완본 출시

이 책은 비쌌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몇배 더 비쌌습니다!
한문을 몰라도, 출생 년월 일시를 몰라도, 만세력을 펼치지 않아도, 오행공부를 하지 못했어도, 찾아(전화)은 시간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 귀신 침범을 정확히 잡아 낼수 있고 그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이 귀신을 밝히면 그 집안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 받게 됩니다)
- 병자(病者)가 지금 어떤 귀신의 침해로 병들었나를 잘 밝히게 됩니다. 해소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그 귀신만 시삭하면 병이 낫게 됩니다)
- 천도 시삭 곳의 효과를 미리 알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활인 능력이 단박에 높아지고 살림이 편안해 집니다. 이점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 산소탈을 잘 밝혀 내게 됩니다. 그 해소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누구의 산소 인가를 알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정 빌미 사승을 밝히게 됩니다. 그 처방이 써져 있습니다. (집안 누구에게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될뿐 아니라 해소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 책은 살림을 넉넉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값 : 2500,000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 전 12권(부록·비디오 포함) 우단급박표지, 적색모조지, 8절크기, 매일 차트식 바인더

주문 안내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 주문전화 : 02-993-8680 · 02-996-3335 부산지사 051-851-2349

아직도 구도(求道)하십니까?

긴 수행과 고행만이 깨달음의 길일까요
고통과 죽음을 초탈한 3일간의 체험

부처님 당시 '미미기집'은 8일만에 깨달았으며 중국의 백림사와 보봉사에서는 이미 잘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테크닉(방법)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이상이 아닌,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비안트 수행법이 있습니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음을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신앙보다는 직접 체험이 더욱 확실하고 값집니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루고 싶을 때
- 갈등, 괴로움, 미움과 좌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악몽과 영가 장애를 스스로 해결하고 천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고 싶을 때
- 확실하고 영원한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수련 과정

本性 (3일)	無心, 無我, 無分別智, 업장소멸, 최의식소멸
無幻法界 (2일)	不守, 寂滅, 無分別後得智, 영적문제해결(천도) 마음의치유와 휴식,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無1상 (2일)	저승담의 비밀, 삶의 기쁨

총파음 禪林院
033)435-6166, 435-8166